



준비와 목탁

강지연 차장

lyjyang@buddhapia.com



###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2008년 현재 대한민국 행복 지수는 71.1점이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가 올해 초 전국 성인 남녀 1만2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엮어 6월 29일 발간한 <대한민국 행복지수>에 수록된 결과다.

남녀별, 소득별, 종교별, 연령별, 가족형태별로 다양하게 나온 결과 가운데 종교인의 행복 지수를 보면 충격을 이길 수 없었다.

종교별 행복지수는 개신교인이 7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톨릭이 71.5점, 불교 69.5점 순이었다. 불교가 최하위였던 것이다. 불교는 심지어 무종교(70.6점)보다도 낮은 행복지수를 나타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한 해탈의 경지를 설하셨는데 왜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불자들은 '덜' 행복한 것일까? 한 스님은 '복 짓는 것'에서 행복의 차이가 온다고 말한다. 복을 달라고 부처님께 비는 '기복(祈福)'에 붙들여 있는 불자들이 복 짓는 것 즉 '작복(作福)'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뒤을 것인가. 부처님은 보시하라고 강조한다. 육바라밀에서 보시를 처음에 놓는 것도 모두 '복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깨닫기 위해서도 '복 짓는 것'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도 '수복(修福)제일'임을 강조하셨다. 복을 뒤는 것을 습관화해서 세세생생 복을 지어야 한다. 알면서도 '기복'이 앞서는 이유를 증생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도 괜찮을까?

부처님께서도 현생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네 가지의 길이 있느니라. 첫째 자신이 맡은 직업에 최선을 다해 스스로 생활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갖가지 재앙으로부터 재산을 잘 보호해야 한다. 셋째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방탕하거나 음흉하지 않은 착한 친구와 사귀어야 한다. 넷째 균형 있는 생활을 꾸려나 가야 한다. 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즐거우니라."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과 행복은 자매라고 한다. 행복이 먼저 오면 불행이 뒤따르고, 불행이 먼저 오면 행복이 뒤따른다. 거대한 윤회의 수레바퀴가 한사람의 일생, 하루 일과, 한 생각 속에서도 끊임 없이 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절망하기보다 '복이 없음은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이니 복 짓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하였던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

# “‘똥보’ 우리아이 마음의 군살까지 짹~”

## 인성형 청소년비만치유학교 8월 1일부터 3주간

### 포교원·불교사회복지연구소 주최 파주 보광사서

이번 여름방학,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새로운 형태의 아동청소년비만치유학교를 연다.

'더 레스 더 모어(The Less The More)'. '더 적을수록 더 많다, 비울수록 더 행복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비만치유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 아이들에게 불교적 중도(中道)사상을 통해 균형과 조화의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더 레스 더 모어' 프로그램은 8월 1일~21일 3주 동안 파주 보광사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 대상이다.

조계종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것은 요즘 소아비만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소아비만저널>이 200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가운데 정상체중의 20%를 초과하는 '똥똥한 어린이'가 무려 3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늘어났다. 아이들이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푸드·탄산음료·인스턴트식품 등 고칼로리 식생활 패턴에만 익숙해져 나타난 결과다. 비만아동의 문제는 비단 몸의 군살로 인한 신체적 위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아동들 대부분이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겪는 것은 물론, 운동능력 저하에 따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지적한다. 이런 문제는 심리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나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더 레스 더 모어'는 기존의 '살만 빼면 된다'는 비만치료학에서 벗어나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처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비만아동청소년들의 신체·심리·사회·정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근원적 비만치유를 통해 아이들을 생태적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더 레스

더 모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 아동청소년 생활방식 변화 ▲ 자아 존중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 동참·변화로 예민한 자연적거리 문화 생활화 ▲ 사찰 생태환경 활용 및 자연과 아동청소년 조화 균형 등이다. 이 밖에도 다도명상·지구촌사람들이야기·생태위기·108배 절운동·전통놀이·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3주 동안 매일 다른 일정표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이 '더 레스 더 모어'의 특징이다.

비만치유학교라는 타이틀에 걸맞

는 식단 운용도 눈에 띈다. 사찰음식 연구소 '공양간' 박상해 소장(해전대·극동대 강사)이 비만학교 아동청소년들의 입맛을 고려하면서도 구입하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 30일분의 사찰음식의 식단을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개발·기획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임혜영 연구실장은 "‘더 레스 더 모어’는 아동청소년 비만을 사찰이 가진 재원으로 총체적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며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마감은 7월 26일, 참가비는 110만원. 조계종 사찰 신도는 10%할인 받을 수 있다. (02)2011-1903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2008년 군승 신고식’ 봉행. 신규 임관된 육·해·공 3군 군병사 14명은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하고 ‘2008년 군승 신고식’을 가졌다. 사진=박재원 기자

### 진각종 통리원 5개 부처 부·국장급 인사

## 새 총무부장 효심 정사

진각종 통리원(원장 회정 정사)은 7월 1일자로 통리원 총무 부장에 효심(대전 대승심인당 주교) 정사를 임명하는 등 중앙 종무기관 5개 부처 부·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총무부장 효심 정사는 1953년생으로 대승심인당, 아축심인당, 보광심인당 주교와 통리원 총무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감원 사감위원과 제12대 종회의 의원, 대승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통리원은 이날 총무국장에 원암(관음심인당 주교) 정사, 문화사회국장에 정호(탑주심

인당 주교) 정사, 관재국장에 지명(승원심인당 주교) 정사를 각각 전보발령하는 한편 기획국장에 서원(선정심인당 주교) 정사, 포교국장에 신해(보불심인당 주교) 정사를 새로 임명했다.

한편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혜정 정사는 6월 18일자로 법인사무처장에 원혜(정지심인당 주교) 정사를, 이어 6월 20일자로 위덕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겸 부총장에 배도순 경영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우 기자

### ‘신도교육 지침서’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일 <신도교육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에는 <입교 교육 지침서> <신도입원 재교육 지침서> <전문교육 지침서>를 비롯해 '신도관련 법령', '신도교육용 교재' 등 신도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통합 수록됐다. 포교원은 이 지침서를 전국 2000여 사찰에 배포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신도교육이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불사"라며 "포교원은 신도교육을 위한 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체계화해 더 좋은 책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 조동종 사단법인 설립 추진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6월 30일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도선사에서 제44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총회의장 행봉 스님 및 총회의원스님, 각 원장스님들은 조동종 사단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청사 기금 마련을 위해 전종도 및 신도가 중심이 돼 청사기금 마련을 제반불사의 기본으로 삼고 천불 및 만공불사를 병행하기로 의결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로 안국동 175-87 한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금정사 고소건 '무혐의' 일단락

### 선학원 법진 스님 기자회견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갈등의 원인이었던 '금정사 횡령 등 고소의 건'이 6월 26일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종결 처분됐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법진 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은 7월 3일 선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정사의 언답 스님과 재단 일부 이사가 아합해 분인을 음해하려 했던 '금정사 횡령 등 고소의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

은 것은 사뭇귀정"이라고 밝혔다.

법진 스님은 "그간 언답과 월오 스님(총무이사) 등은 2007년 11월부터 무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신도들을 종용해 거짓 사실을 투서케 하고 사부대중을 반복케 한 것에 대해 깊은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것이 소송의 부덕한 소치로 발생한 것임을 통감하고 선학원 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면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기공, 최면, 빙의, 퇴마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예약은 사전 7일전에 하셔야 합니다.
- 절망적인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위치: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한국 빙의 퇴마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